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2022.06.24(금)

지부교섭 속보

9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9차 지부교섭_ 교섭 결렬 선언]

추가 제시안 없이 교섭 결렬!



지부교섭 9차 만에 결렬

사용자들이 2주 연속 빈손으로 교섭에 참석했다. 6월 23일(목) 한은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9차 지부교섭은 6분 만에 끝났다. 박종우 지부장은 “아무런 제시안이 없다면 교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6월 21일(화) 중앙교섭에서도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 모두 결렬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일괄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이후 투쟁일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7/1 일괄 조정신청 돌입

금속노조는 7월 1일(금) 모든 교섭단위들이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7월 4일(월) ~ 7일(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금속노조 모든 교섭단위는 일괄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부는 7월 20일(수) 총파업을 진행한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각 사업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 막힌 교섭을 뚫어갈 것이다. 또한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조와 정부의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포문도 연다.

9차 교섭 속기록

사용자 노력이 많이 부족해보인다

노 : 지난 화요일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8차 교섭까지 계속해서 예전처럼 중앙교섭 눈치보지 말고 지부가 수용할만한 안 제출해달고 요구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는 사업장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늘 교섭에서는 지부가 수용할만한 안이 제출되길 바란다.

사 : 몇 달째 악재가 계속된다. 물가도 그렇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또 계속 가물었는데 비가 오기도 한다. 많이 고민해봤는데 오늘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계속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실무 간에 협의할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

노 : 다 아시는 것처럼 금속노조 전체가 조정 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사용자들이 제시안을 낼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는 있다. 2002년부터 집단교섭을 해왔다. 우리 지역은 노사관계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다른 느낌이 있다. 집단교섭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다. 조정회의 자리에서 2차례 만나겠지만, 조정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자 측이 안을 모아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해보인다.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런 방식이면 교섭이 계속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교섭 재개될 때까지 방안을 찾아보자. 집단 교섭에 균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교섭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중앙교섭에 이어서 지부교섭이 무의미하다. 교섭 결렬 선언한다. 차기에 교섭이 열리면 회사 측에서는 의견 조율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섭이 됐으면 좋겠다.

< 2022년 임단투 향후 일정 >

- | | |
|---------------------|-------------------------------|
| △ 6월 23일(목) | 지부교섭 결렬 |
| △ 7월 1일(금) | 일괄 조정신청 (금속노조 모든 교섭단위) |
| △ 7월 1일(금) ~ 11일(월)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조정회의 2회 개최 예정) |
| △ 7월 4일(월) ~ 7(목) | 쟁의행위 찬반투표 |
| △ 7월 20일(수) | 금속노조 총파업 |